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가 형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s of Accidental Technolog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2019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가 형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택호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가형

김가형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권해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승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지현 (인)

2018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 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및 가설	5
II. 이론적 배경	6
A. 진로탄력성	6
1. 진로탄력성의 개념 및 특징	6
B.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8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 및 특징	8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의 관계	9
C. 계획된 우연기술	10
1. 계획된 우연기술의 개념 및 특징	10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관계	11
3.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탄력성의 관계	12
D.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탄력성 및 계획된 우연기술과의 관계	13
III. 연구 방법	15
A. 연구 대상	15
B. 측정 도구	16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16

2. 진로탄력성 척도	16
3.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	17
C. 연구절차	18
D. 분석방법	19
IV. 연구결과	20
A. 기술통계	20
B. 측정변인 및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22
C. 측정모형의 타당도 검증	24
D. 연구모형 검증	28
E. ANOVA 검증	31
V. 결론 및 논의	33
A. 결론 및 논의	33
B. 제언	36
VI. 참고문헌	37
VII. 부록	43

표 목차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5
<표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16
<표 3> 진로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17
<표 4>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18
<표 5>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0
<표 6>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21
<표 7> 주요 변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22
<표 8>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24
<표 9>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25
<표 10> 연구개념 간의 상관계수 제공.....	27
<표 11> 연구모형의 적합도.....	28
<표 12> 연구경로 모형.....	29
<표 13> 최종연구모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성 검증.....	30
<표 14> 공변량분석 결과.....	32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모형.....	5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간 상관과 요인부하량.....	26
<그림 3> 최종연구모형.....	29

국 문 초 록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김 가 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내 대학교 325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척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와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기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의 요약과 같다. 첫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탄력성 간의 관계를 증명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 사이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점이 논의되었다.

주 용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계획된 우연기술, 진로탄력성, 매개효과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Accidental Technolog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Kim Ka Hyoung

Advisor : Prof. Kim Tack-Ho, Ph. D.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Accidental Technology has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Resilience of college stud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25 college studen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Jeollanam - do and Seoul Metropolitan Cit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cale, Career Resilience and Accidental Technology,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analyzed that data collect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ccidental Technology, and Career Resilienc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fluences Accidental Technology and Career Resilience. Third, Accidental Technology affects Career Resilience. Fourth, Accidental Technology partially mediated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Resilience.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ccidental Technology, Career Resilience, mediation effect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란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와 ‘초연결성(Hyper-Connected)’의 특징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정보통신기술의 주도로 혁신적인 변화를 보이며 경제 및 사회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을 대표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직업과 일자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엔 미래보고서 2030」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의 80%가 사라진다고 보고되었다.(국민일보, 2018.01.29.)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과학 기술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기술이 융합되고, 분야 간 상호연결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서 이전의 어떤 혁명 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 했다. 그러나 최근 대학생들이 4차 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안윤정, 임운서, 2017), 4차 산업에 대해 가장 긍정적 인식을 나타낸 이과대와 바이오시스템대 전공에 비해 문과대, 사범대, 예술대의 긍정적 인식은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인문학의 필요성과 의미가 강조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손화철, 2016), 대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양한 전공 안에서의 적용과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진로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진로확립과 직업 선택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때가 바로 대학생 시기에 해당한다(강문진, 2017).

그동안의 진로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즉 진로성숙을 위한 연구에 관심이 주로 이루어졌다. 진로성숙이란 직업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도(Super & Kidd, 1979)로, 이러한 진로성숙 개념은 선형적인 진로발달을 가정하는 산업시대에는 유효하였으나 사회변화와 불확실성이 심한 정보화 시대의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졌다(Chan et al., 2015).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서 대학생은 개인의 강점

과 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개입과 활용을 통한 성장과 발달의 관점에서 자신의 진로를 주도하고 유연하게 진로장애물을 극복하여 자신의 진로를 관리하는 탄력적인 태도나 능력이 요구되는데(김미경, 2014), 최근 이에 필요한 직업 역량으로 진로탄력성이 언급되기 시작되었다.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서는 진로결정과 준비행동만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성숙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미래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인 진로탄력성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진로탄력성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진로목표 성취를 위해 꾸준히 학습하고 자기향상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며, 적극적인 자신의 진로관리를 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London, 1983; Rickwood & Roberts, 2002). 진로탄력성은 탄력성의 확장된 개념으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극복하는 핵심 요소이며(London & Mone, 1987),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 활용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김미경, 2014). 진로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확실하고 좌절되는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목표 달성과 직업 적응 및 성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탄력성의 개념이 연구자의 학문분야나 관점에 따라 ‘자아탄력성’, ‘적응유연성’, ‘탄력성’, ‘회복탄력성’, ‘극복력’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는데(강남옥, 김장희, 2016), 가장 유사한 개념인 ‘진로적응성’과 진로탄력성 간 개념에 대한 구분은 최근까지도 많은 진로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Bimrose와 Hearne(2012)에 따르면, 진로적응성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사전준비경향성’과 관련이 있지만, 진로탄력성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반응경향성’이 강하다고 풀이했다. 또한 진로적응성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대책이자 준비이며 일종의 인지적 자기조절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진로탄력성은 직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에 대한 개인의 대응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진로탄력성과 진로적응성 두 가지 개념이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 속성을 나타내며 두 개념 간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Goodman, 1994; Kohn et al, 2003).

진로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타 진로 관련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유현실(2013)의 연구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강남옥, 김장희, 2016). 이지혜(2013)는 대학생의 진로탄력성과 진로성숙도 사이의 정적상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으며, 강현희(2015)는 폴리텍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탄력성이 부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직업정보 부족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진로탄력성이 완전매

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 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정보나 자신감 결여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강현희, 2015).

진로선택과 탐색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직무조건 변화 속에서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과 유연한 대처능력은 증가한다고 한다(조성연, 홍지연, 2010). 여러 연구에서 진로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서경희, 광원준, 심지현 2015; 조성연, 홍지연, 2010). 또한 대학생 시기는 진로발달적인 측면에서 진로에 대한 자신감과 주도성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는 진로에 대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므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이종찬, 201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이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의미한다(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진로 과업에 더 도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하였다(De Pateretal, 2009). Tayl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자기평가, 계획수립, 직업정보 수집, 목표설정, 문제해결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를 제작하고 개념을 일반화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설명하고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한 개인 특징인 ‘계획된 우연기술’이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이란 계획된 우연기술이란 계획되지 않은 우연 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진로기회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유순화, 2016). 계획된 우연기술은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의 다섯 가지 기술로 나뉘며(Michell, Levin, Krumboltz, 1999), 계획된 우연 기술이 발달된 개인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연적 사건을 자신의 진로에 긍정적 사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우연적 사건이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며(손은령, 2012; 송병국, 1998;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최보영 외, 2011; 황현덕, 2012),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약 70%가 계획된 우연기술의 영향으로 현재의 직업을 선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안윤정, 오현주, 20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계획된 우연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소인 위험감수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김기승, 20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인 진로결정성이 높을수록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소인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주리리, 2012)를 통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계획된 우연

기술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진로과정 중에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우연을 기회로 만들어 내는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환경 변화의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진로탄력성과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에 실제적인 탐색행동을 증가시키고 입직 후 직업에서의 안녕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오현주, 2013), 우연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 기술이 높을수록 진로탄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는 등(권기남, 2016; 박현영, 2011; 조은혜, 2011),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탄력성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대학생의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의 진로탄력성을 예언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계획된 우연기술 간에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세 변인들의 관계에 근거할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획된 우연기술을 통해 진로탄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언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계획된 우연기술의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연적 사건을 기회로 인식하여 진로 변화 대처 상황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B.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기술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가설 1-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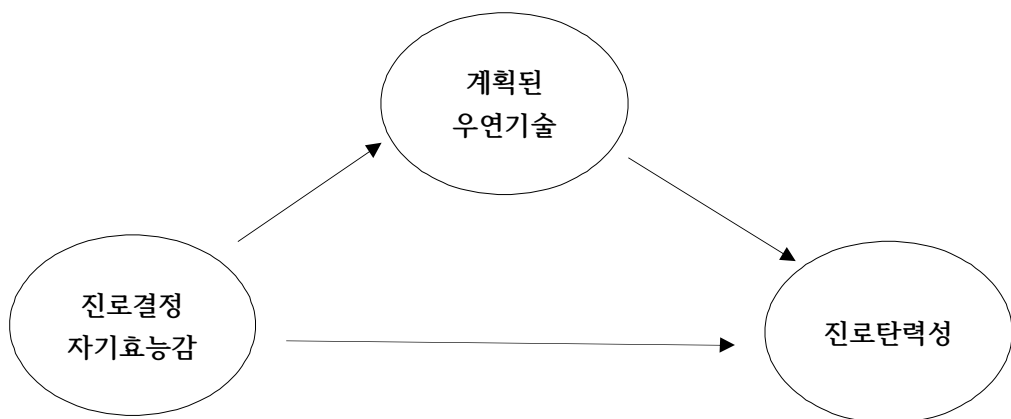
연구가설 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1-3.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탄력성과 정적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연구가설 2-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은 매개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모형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II. 이론적 배경

A. 진로탄력성

1. 진로탄력성의 개념

진로탄력성은 긍정심리학의 대표적 개념인 자아탄력성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엠태영, 2016), 여기서 말하는 자아탄력성이란 내적·외적 스트레스에 대한 융통성 있고 풍부한 적응능력으로 인지적·사회적·개인적 영역에서 문제해결이 가능한 융통성 있는 능력이라 볼 수 있다(Block & Block, 1980).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긴장 인내의 수준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 높아 낮은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반대로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이러한 조절능력이 부족하여 낮은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이지혜, 2013; 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잘 기능하게 만드는 개인의 성격 자원임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에 자아탄력성은 발달의 과정에서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 성인기에도 제반 생활영역에서 발휘되는 성격특성이므로(구형모, 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직업선택 상황에서 활용되는 개인의 자아탄력성을 진로탄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김기승, 2014).

진로탄력성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진로목표 성취를 위해 꾸준히 학습하고 자기향상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며, 적극적인 자신의 진로관리를 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London, 1983; Rickwood & Roberts, 2002). 또한 진로탄력성은 진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또는 특성을 의미하며 진로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진로장벽, 불확실성, 동료 간 부정적 관계 등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진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된다(엠태영, 2016).

진로탄력성을 개인의 능력으로 고려하였을 때 성취욕구, 자신감,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경향, 적절한 시기에 독립적 또는 협동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고(London & Mone, 1987) 이것을 바탕으로 ‘변화에 쉽게 적응하기’, ‘최선을

다하기’, ‘진로목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을 주도적으로 하기’, ‘대중적이지 않을 때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말하기’, ‘새로운 학습기술이 필요한 과제 찾기’, ‘혁신적이기’로 구성된 여섯 가지의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최유진, 2015). 이후의 연구에서 진로탄력성의 하위요인을 자기효능감, 위험감수, 낮은 의존성으로 재분류되어, 재분류된 하위 요인 중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 자율성욕구, 적응력, 내적 통제감, 성취욕구, 주도성, 창의욕구, 내적인 작업 기준, 발전경향성의 세부 요인으로 구성되었고(London, 1997), 위험감수의 세부요인으로는 위험감수 경향, 낮은 실패 두려움, 낮은 안정추구 경향, 불확실성과 모호함에 대한 인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낮은 의존성은 경쟁경향, 인정욕구, 동료의 인정으로 구성되었다(최유진, 2015). 한편 진로탄력성 측정 방법에는 그 하위요인으로 자기신념, 주관적 성공관, 자립성, 변화수용성 등을 제시하였으며(Fourie & Van Vuuren, 1998), 또 다른 하위요인으로는 자기신뢰, 변화수용성, 진로자립, 성공에 대한 윤리성(De Bruin & Lew, 2000) 등으로 제시되었다(김기승, 2014). 김미경(2014)은 이를 기반으로 진로자립, 자기신뢰, 성취열망, 관계활용, 변화대처의 5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된 진로탄력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진로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타 진로 관련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유현실(2013)의 연구를 기점으로 국내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강남옥, 김장희, 2016). 이지혜(2013)는 대학생의 진로탄력성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으며, 강현희(2015)는 폴리텍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탄력성이 부분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진로탄력성은 강한 자기신뢰로 삶의 좌절과 실패를 이겨내고 자신의 진로 목표 달성을 추구하고 긍정적으로 성장·발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삶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성숙되고 잘 적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미경, 2014). 대학생 시기는 자아정체감과 정서적 독립과 동시에 직업세계로의 전환과 진로결정 등 여러 가지 발달 과업들을 수행해야 하므로, 진로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문제는 중요성이 크고 현재의 적응이 이후의 적응체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최지현, 2009), 진로탄력성이 더욱 고려 되어야한다.

B.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자 신념이다(Hackett & Betz, 198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이해하기 이전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기효능감을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뜻하며(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과제수행을 위한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안 될 것 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더 많이 노력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 또한 촉진하게 된다(Schunk, 1984). 하지만 자기효능감은 난이도, 과제의 복잡성, 수행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은 학업적상황과 같은 특정한 맥락 안에서 개인의 수행능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진로를 선택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의사결정행동을 요구하는 진로 분야의 자기효능감을 적용하기 위해서 진로와 관련된 특정한 자기효능감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이은경, 2000). 직업 선택과 기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의 사결정과 마찬가지로 진로상담에서도 적용되어야 했다(김보경, 2012; 김희주, 2014; 송현심, 홍혜영; 20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을 확장한 개념이다. Hackett과 Betz(1981)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성취행동과 진로결정, 전공, 진로탐색활동 등에서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보고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였다(Lent et al., 1994). 사회인지 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 이유를 진로결정을 위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인지할수록 그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한다(Betz et al., 1996; Lent et al., 1994). Hackett과 Betz(1981)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의 성취행동과 진로결정, 전공, 진로탐색활동 등에서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보고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였다(Lent et al., 1994).

Taylor와 Betz(1983)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자기평가, 계획수립, 직업정보 수집, 목표설정, 문제해결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areer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를 제작하고 개념을 일반화하였다.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인 자기평가는 자신의 가치, 능력, 욕구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본인에게 맞는 직업 분석이 가능하다는 믿음이고, 직업정보의 수집은 관심이 생기는 직업을 찾은 후 그 직업과 관련하여 갖춰야 할 조건 등의 세부 내용을 탐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계획수립은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한 미래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실천에 대한 의지가 포함되며, 목표설정은 자신의 학업 및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신뢰이며, 문제해결은 진로장벽 등의 진로역경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과 효능에 대한 기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과의 관계

진로탄력성은 현재 또는 예상되는 미래의 진로발달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이기 때문에 미래의 직업세계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의 관련성은 이론적, 경험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Guan과 동료들(2015) 그리고 Hirschi(2009)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 간의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고하였고, Creed와 동료들(2007)은 높은 자기효능감이 진로탄력성의 발달을 촉진한다고 제안하였다. Rottinghaus와 동료들(2005)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관련 문제해결자신감이 진로탄력성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탐색(진로호기심)이 활발하거나 진로선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민, 민경식, 2011). 진로탄력성과 유사한 개념인 진로적응성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 관계에서 높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김세연, 2015). 이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의 정향을 살펴본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한다(김나래, 2013; 이순희, 손은령, 2013; 조성연, 홍지영, 2010; 최옥현, 김봉환, 2006). 신윤정(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로 관련 과업수행에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진로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C. 계획된 우연기술

1. 계획된 우연기술의 개념

사회의 변화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개인이 겪게 되는 변화가 양적으로 늘어났으며, 진로상담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에의 영향, 즉 우연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송병국, 이채식, 1997; 손은령, 2009; Krumboltz, 2009; 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진로상황에 있어서 우연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송병국, 1998; 손은령, 2012; 이상희, 신상수, 2012; Baumgardner, 1997; Bright, Pryor, & Harpham, 2005; Scott & Hatallo, 1990).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약 69%의 학생들이 우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Bright, Pryor, & Harpham, 2005). 대학졸업자들의 진로의사결정 유형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입직자 중 약 72%가 예기치 않았던 요소나 사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Baumgardner, 1997). 대학교육을 받은 94명의 여성 피험자 중 63%이상은 예상하지 못한 개인적 사건으로 인해 직업 경로가 달라졌다고 하였다(Scott & Hatallo, 1990). 국내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선택 시 우연의 영향을 요인별로 구분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였다(이상희, 신상수, 2012). 성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결정과 우연성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약 59%가 우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송병국, 1998). 40대 여성 진로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우연을 긍정적으로 볼수록 진로결정의 내용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손은령, 2012). 즉 우연 요소는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획된 우연’은 우연 사건의 가능성에 대해 능동으로 행동하는 방법이며 우연을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능동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손은령, 2012). 따라서 우연적 사건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연의 영향을 인식하고, 우연을 개인의 노력에 따라 의미 있는 학습경험의 기회로 만드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필요하다(Michell, Levin, & Krumboltz, 1999). 계획된 우연기술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양식으로 자신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우연 사건을 진로 발달의 기회로 사용하는 학습기술로 개인의 노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내적 변인이다(곽윤지, 2017; 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이러한 계획된 우연기술은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를 말하며, 학습경험,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 조건이나 사건 등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다(Mitchell, 1990). 계획된 우연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은 미래의 예기치 못한 사건에 도움이 되는 직업정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우연을 기회로 만듦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우연에 대처할 수 있다(Michell, Levin, & Krumboltz, 1999). 또한 진로발달을 위해 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인 우연을 인식하고, 이를 기회로 만들고 이용할 수 있다(Michell, Levin, & Krumboltz, 1999). 따라서 계획된 우연기술은 불확실성한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른 진로발달 촉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달시켜야 할 개인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이 연속되며, 이는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끊임없이 나타난다. 따라서 우연적 사건은 불확실하고 문제적인 상황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Mitchell, 1990).

계획된 우연기술은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그리고 위험감수의 다섯 가지 행동특성으로 구성된다. 호기심은 새로운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내심은 의도치 않게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남을 뜻한다. 유연성은 한번 결정한 목표와 계획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열린 마음을 갖는 태도를 의미하며 낙관성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지라도 그것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면서 기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위험감수는 불확실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고되더라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며 준비해 온 것과는 다른 새로운 적성을 발견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계획된 우연기술은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탐색하고, 상황을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순발력 있게 대처하며 필요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바꾸고, 어려운 난관에서도 노력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따라서 개인의 긍정적 특성요인인 계획된 우연기술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불안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적극적인 진로탐색을 가능하게 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김보영 외, 2016; 황현덕 외, 2012).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계획된 우연기술의 관계

Mitchell, Levin과 Krumboltz(1999)는 진로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연의 영향력을 인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연을 활용하는 진로상담이론을 제안하며 세상의 끊임없는 변화를 인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개인의 진로가 발달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Krumboltz(2009)는 우연을 고려하지 않는 개인은 많은 변화하는 진로 현실에서 혼동을 겪을 수 있지만 우연을 잘 활용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변화하는 환경 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을 잘 사용하는 개인은 호기심이 있고 위험을 감수해낼 수 있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에 당황하기 보다는 오히려 낙관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대처하며 인내심을 활용하여 변화를 개인의 진로상황에 유리하도록 이끌어내는 노력을 한다. 이런 적극적 탐색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많아지고 인내심을 통해 결실을 맺도록 하기 때문에 계획된 우연기술은 현실세계에서 적응력을 높인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세계에서 세계의 특징을 인정하고, 특징을 최대한 사용하는 기술은 진로발달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장선희, 201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계획된 우연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소인 위험감수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김기승, 20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소인 진로결정성이 높을수록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소인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주리리, 2012)를 통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은 사람은 우연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며, 위험감수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내면에는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자신감이 높고 적응적이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한 중요한 과업인 진로 결정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3.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탄력성의 관계

진로상황에서 우연을 고려하지 않는 개인은 변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보고하는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탄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녀 대학생 모두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탄력성 간에 높은 정적상관이 있었다. 진로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우연적 사건에서 남학생은 우연을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으로

보고, 여학생은 낙관적인 사고로 남녀학생 모두 융통성을 발휘하여 목표를 향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순화, 2016). 다른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우연 대처 능력이 높을수록 취업태도에 긍정적이며 진로탐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조남근, 정미예, 2013). 또한 오현주(2013)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계획된 우연기술을 기회전략으로 보고 우연기술이 높을수록 직무 목표, 긍정적 조직 관계, 자기수용, 직무성장, 직무자율성, 환경통제를 의미하는 직업안녕감이 높아짐을 밝혔다. 즉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에 실제적인 탐색행동을 증가시키고 입직 후 직업에서의 안녕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오현주, 2013). 이처럼 우연대처기술과 진로탄력성의 상관분석에서 우연대처기술이 진로탄력성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우연에 대한 인식과 대처 기술이 높을수록 진로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권기남, 2016; 박현영, 2011; 조은혜, 2011). 또한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과 진로적응성과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전공 대학원생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 요인인 낙관성은 진로적응성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이순희, 손은령, 2013). 그리고 높은 위험감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보다 빨리 내고 기꺼이 기회를 잡으며(김완재, 정화영, 2007), 위험감수를 통해 새로운 직종에 진입하는 기회를 잡고 선점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오현주, 2013).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통합하여 살펴본다면, 계획된 우연기술은 우연을 기회로 인식하여 진로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D.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탄력성 및 계획된 우연기술과의 관계

진로탄력성은 현재 또는 예상되는 미래의 진로발달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이기 때문에 미래의 직업세계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확신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예측할 수 없는 세계에서 세계의 특징을 인정하고, 특징을 최대한 사용하는 기술은 진로발달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장선희, 2013). 이러한 우연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적응적일 수 있지만, 우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많은 진로현실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계획된 우연기술 및

진로탄력성이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탄력성을 예언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계획된 우연기술 간에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변인들의 관계에 근거할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획된 우연기술을 통해 진로탄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계획된 우연기술을 통해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상 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남학생 142명(44.8%), 여학생 175명(55.2%), 총 31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17)

요인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42	44.8
	여자	175	55.2
나이	20세 이하	78	24.6
	21~23세 이하	131	41.3
	24~26세 이하	78	24.6
	27세 이상	30	9.5
학년	1학년	55	17.4
	2학년	59	18.6
	3학년	80	25.2
	4학년	92	29.0
	기타	31	9.8
전공	인문계열	62	19.6
	사회계열	53	16.7
	사범계열	32	10.1
	자연계열	37	11.7
	공과계열	89	28.1
	의약계열	17	5.4
	예체능계열	20	6.3
	기타	7	2.2
총계		100	317

B. 측정 도구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를 위해 Crites(1978)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모형을 기초하여 구성된 CDMSE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Taylor & Betz, 1983)라는 척도의 50문항 중에서 Betz와 Vuyten(1997)이 새로이 구성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를 이상민 외 3인(2007)에 의해 재구성한 단축형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6문항의 진로결정, 3문항의 문제해결, 4문항의 진로탐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91이며, 진로결정은 .868, 문제해결은 .882, 진로탐색은 .936으로 나타났다.

<표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317)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진로결정	1,2,3,5,8,11	6	.868
문제해결	4,9,13	3	.882
진로탐색	6,7,10,12	4	.936
전체	1 - 13	13	.910

2. 진로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미경(201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활용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전체 30개 문항이다. 측정방법은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미경(20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전체가 .933이었으며, 하위변인 자기신뢰 .875, 성취열망 .878, 진로자립 .874, 변화대처 .843, 관계활용 .897이었다.

<표 3> 진로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317)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자기신뢰	1,2,3,4,5,6	5	.845
성취열망	7,8,9,10,11,12	5	.878
진로자립	13,14,15,16,17,18	5	.874
변화대처	19,20,21,22,23,24	5	.843
관계활용	25,26,27,28,29,30	5	.897
전체	1 - 30	30	.933

3.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

계획된 우연기술을 측정하기 위하여 Krumboltz(1999)의 계획된 우연 이론에 근거하여, Kim, Jang, Jung, Lee, Rhee, Cho 및 Lee(2014)가 개발한 ‘계획된 우연 척도 (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 PHCI)’를 사용하였다. 이는 김보람(2012)의 ‘계획된 진로 우연 척도(Career-related Planned Happenstance Scale; CPHS)’의 버전을 개정한 것이다. 총 25개 문항으로 5개 요인(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에 대한 각 하위척도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척도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상황의 우연적 사건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Kim 등(2014)의 연구에서 계획된 우연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4이고, 호기심 .738, 인내심 .817, 유연성 .751, 낙관성 .854, 위험감수 .754로 나타났다.

<표 4>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317)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호기심	1,2,7,20,21	5	.738
인내심	3,8,9,15,24	5	.817
유연성	4,10,14,16,22	5	.751
낙관성	5,13,17,18,23	5	.854
위험감수	6,11,12,19,25	5	.754
전체	1 - 25	25	.904

C.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내 대학교 1, 2, 3, 4학 년 남, 여 학생 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한 학과의 학생에게만 편중된 결과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에게 배부 및 실시를 하였으며, 검사 실시 전 간단한 사전 설명을 진행하였다. 설문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였으며, 총 325부의 설문 중 진행 중에 응답을 멈추거나 불성실하게 표시된 8부를 제외한 317부를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 및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D.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AMOS 23.0을 활용하여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한 척도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척도별로 타당성 분석과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자료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변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기술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측정 변수들이 잠재 변인을 잘 구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FA)를 실시하였으며, 적합도 및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의 연구 모형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관한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적합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치로 절대적합지수인 χ^2 , GFI와 증분적합지수인 CFI, TLI, IFI를 사용하였다.

여섯째, 최종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간접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A. 기술 통계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5>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17)

요인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42	44.8
	여자	175	55.2
연령	20세 이하	78	24.6
	21~23세 이하	131	41.3
	24~26세 이하	78	24.6
	27세 이상	30	9.5
학년	1학년	55	17.4
	2학년	59	18.6
	3학년	80	25.2
	4학년	92	29.0
	기타	31	9.8
전공	인문계열	62	19.6
	사회계열	53	16.7
	사범계열	32	10.1
	자연계열	37	11.7
	공과계열	89	28.1
	의약계열	17	5.4
	예체능계열	20	6.3
	기타	7	2.2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자가 55.2%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남자는 44.8%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에는 21~23세가 41.3%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고 20세 이하, 24~26세가 각각 24.6%, 27세 이상이 9.5%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에는 4학년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학년이 25.2%, 2학년이 18.6%, 1학년이 1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의 경우에는 공과계열이 2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문계열이 19.6%, 사회계열이 16.7%, 자연계열이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 1, 자기효능감2, 자기효능감3), 진로탄력성(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활용), 우연기술(우연기술1, 우연기술2, 우연기술3, 우연기술4, 우연기술5)의 기술 통계치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높은 점수일수록 척도에서 측정하고 있는 문제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낮은 점수일수록 문제를 적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관찰 변인의 정규분포성 가정 충족여부를 검토하였다. 다변량 측정 변인의 왜도는<2, 첨도는<7 일 경우 정상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West, Finch & Curran(1995),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측정변인들의 경우 모두 정상성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위한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는 아래와 같다.

<표 6>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317)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왜도	첨도
자기효능감	3.72	.544	5	2	-.145	.221
자기효능감1	3.74	.679	5	2	-.386	-.066
자기효능감2	3.41	.991	5	1	-.315	-.571
자기효능감3	3.75	.716	5	2	-.307	.029
진로탄력성	3.85	.567	5	2	-.173	-.331
자기신뢰	3.96	.743	5	2	-.491	-.194
성취열망	3.94	.694	5	2	-.389	-.418
진로자립	3.94	.663	5	2	-.163	-.375
변화대처	3.43	.819	5	1	-.093	-.339
관계활용	3.99	.732	5	1	-.739	.568
우연기술	3.71	.515	5	2	.395	-.072
우연기술1	3.66	.695	5	1	-.568	.815
우연기술2	3.67	.748	5	1	-.309	-.082
우연기술3	3.78	.615	5	2	.015	-.428
우연기술4	3.83	.682	5	2	-.306	-.168
우연기술5	3.53	.739	5	1	-.004	-.165

B. 측정변인 및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기술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주요 변인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N=317)

	1	1-1	1-2	1-3	2	2-1	2-2	2-3	2-4	2-5	3	3-1	3-2	3-3	3-4	3-5
1. 자기효능감	1															
1-1. 자기효능감1	.830 **	1														
1-2. 자기효능감2	.419 **	.155 **	1													
1-3. 자기효능감3	.780 **	.510 **	-.00 4	1												
2. 진로탄력성	.503 **	.345 **	.147 **	.484 **	1											
2-1. 자기신뢰	.426 **	.343 **	.125 *	.365 **	.855 **	1										
2-2. 성취열망	.500 **	.338 **	.189 **	.457 **	.801 **	.633 **	1									
2-3. 진로자립	.480 **	.330 **	.157 **	.430 **	.811 **	.646 **	.673 **	1								
2-4. 변화대처	.296 **	.161 **	.119 *	.310 **	.781 **	.600 **	.499 **	.533 **	1							
2-5. 관계활용	.275 **	.188 **	-.01 4	.332 **	.635 **	.437 **	.342 **	.343 **	.340 **	1						
3. 우연기술	.507 **	.388 **	.330 **	.340 **	.701 **	.609 **	.571 **	.584 **	.558 **	.399 **	1					
3-1. 우연기술1	.309 **	.230 **	.238 **	.196 **	.401 **	.302 **	.286 **	.278 **	.318 **	.367 **	.678 **	1				
3-2. 우연기술2	.231 **	.098 **	.463 **	.062 **	.257 **	.195 **	.236 **	.161 **	.245 **	.153 **	.641 **	.530 **	1			
3-3. 우연기술3	.499 **	.410 **	.191 **	.386 **	.653 **	.573 **	.546 **	.632 **	.486 **	.314 **	.790 **	.331 **	.279 **	1		
3-4. 우연기술4	.489 **	.449 **	.110 *	.373 **	.706 **	.718 **	.545 **	.593 **	.486 **	.408 **	.783 **	.403 **	.279 **	.652 **	1	
3-5. 우연기술5	.366 **	.274 **	.276 **	.231 **	.540 **	.449 **	.459 **	.434 **	.496 **	.251 **	.791 **	.421 **	.380 **	.611 **	.518 **	1

* $p < .05$, ** $p < .01$

주요 변인들과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먼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03, p<.01$).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진로탄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탄력성의 하위영역 또한 성취열망($r=.500, p<.01$), 진로자립($r=.480, p<.01$), 자기신뢰($r=.426, p<.01$), 변화대처($r=.296, p<.01$), 관계활용($r=.275, p<.01$)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계획된 우연기술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507, p<.01$).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계획된 우연기술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연기술3($r=.499, p<.01$), 우연기술4($r=.489, p<.01$), 우연기술5($r=.366, p<.01$), 우연기술1($r=.309, p<.01$), 우연기술2($r=.231, p<.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탄력성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유의미한 정적상관($r=.701, p<.01$)을 보였다. 이는 진로탄력성이 높으면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탄력성과 계획된 우연기술 하위영역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정적상관($r=.401\sim.706, p<.01$)을 나타냈다.

C. 측정모형의 타당도 검증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검증을 통해 구성된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하위변인에 대해 공분산 행렬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사전에 탐색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거나, 미리 가정한 모형으로 자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점에서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해석을 위해서 먼저 전반적인 적합지수를 검토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통계량, 기초부합치인 GFI(Goodness-of-Fit Index), 원소 간 평균 차이인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조정부합치인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 비표준부합치인 TLI(Tucker-Lewis Index), 표준부합치인 NFI(Normed Fit Index)를 이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여섯 가지 평가 기준 중 4개 이상이 평가기준에 도달하면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판정된다.

<표 8>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절대 적합도 지수						상대 적합도 지수			
	χ^2 값(p)	Q	GFI	RMR	RMSEA	AGFI	TLI	NFI	CFI	IFI
초기 모형	976.101 (p<.001)	1.749	.857	.042	.089	.829	.901	.818	.912	.813
최종 모형	199.128 (p<.001)	3.375	.914	.033	.087	.868	.904	.901	.928	.928
수용 수준	계산된 χ^2 값과 임계치를 비교	10미만 우수	.90 이상 우수	.05 이하 우수	.10 이하 적합 .05 이하 매우 적합	.90 이상 우수	.90 이상 우수	.90 이상 우수	.90 이상 우수	.90 이상 우수

<표 8>과 같이 측정모형의 경우 $\chi^2=199.128$, $p=.000$, $Q=3.375$, $CFI=.928$, $GFI=.914$, $TLI=.904$ 로 분석되어 구조방정식의 모형은 검증되었다. Q값은 자유도의 증감에 따른 χ^2 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3보다 적어야 전반적인 적합도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으며, 8까지는 허용 가능한 수치(10 이상인 경우에는 모형적합도에 문제가 있다), GFI, TLI는 .90 이상이면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합도는 비교적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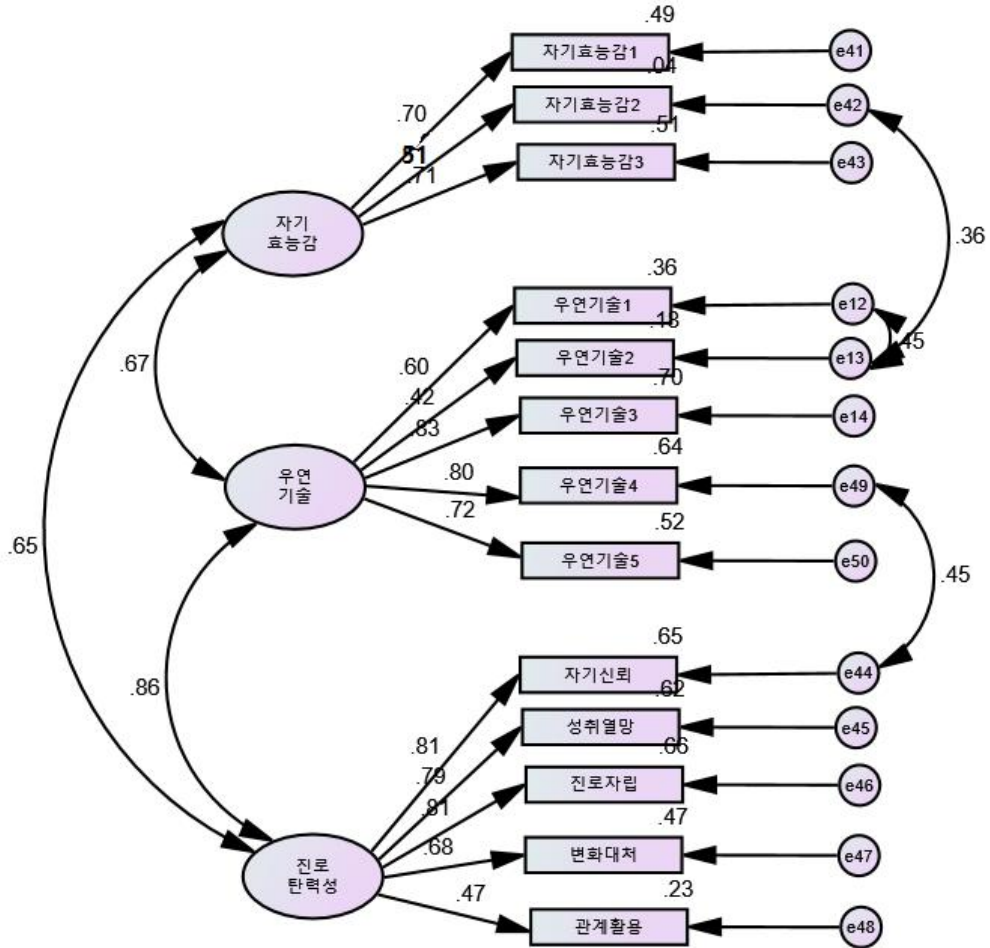
(1) 집중타당성

<표 9>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Estimate	표준	비표준	측정오차	t	개념	평균분
	S.E.	부하량	부하량			신뢰도	산추출
							지수
우연기술	→ 우연기술1	.597	1.000				
	→ 우연기술2	.420	.746	.085	8.746	***	
	→ 우연기술3	.835	1.348	.124	10.905	***	.814
	→ 우연기술4	.802	1.439	.135	10.685	***	
	→ 우연기술5	.723	1.310	.131	9.981	***	
자기효능감	→ 자기효능감1	.701	1.000				
	→ 자기효능감2	.505	.608	.135	3.026	.002	.678
	→ 자기효능감3	.712	1.072	.129	8.279	***	
진로탄력성	→ 자기신뢰	.806	1.000				
	→ 성취열망	.786	.916	.061	15.080	***	
	→ 진로자립	.814	.906	.058	15.739	***	.842
	→ 변화대처	.683	.939	.074	12.686	***	
	→ 관계활용	.474	.582	.070	8.345	***	

*** $p < .001$

평균분산추출량은 Fornell and Laker(1981)가 제안한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며, 평균분산추출량은 일반적으로 0.5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항목들의 분산 중 1/2은 construct에 의해 설명될 수 있어야 그 항목들을 수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학식, 임지훈 2009).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서 사용된 구성개념간의 평균분산추출량은 <표 9>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각 단위별 척도들에 대하여 서로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이며,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실시 결과 대부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간 상관과 요인부하량

(2) 판별타당성

판별 타당도는 두 연구개념의 평균분산추출지수와 상관계수의 제곱을 비교하여 두 평균분산추출지수가 모두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지를 확인하여 각각의 평균분산추출지수가 모두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다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연구개념 간 상관계수를 제곱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상관계수의 제곱 값과 평균분산추출지수를 비교했을 때, 모든 연구개념 간 상관계수 제곱의 크기는 0.25~0.49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개념 중 가장 작은 평균분산추출지수 0.523값보다 작은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서 두 연구개념 각각의 평균분산추출지수가 두 연구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크기 때문에 측정 변인들의 판별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연구개념 간의 상관계수 제곱(r^2)

	자기효능감	우연기술	진로탄력성
자기효능감	1		
우연기술	0.26	1	
진로탄력성	0.25	0.49	1

D. 연구모형 검증

1. 구조모형의 타당성 검증

<표 11> 연구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절대 적합도 지수						상대 적합도 지수			
	χ^2 값(p)	Q	GFI	RMR	RMSEA	AGFI	TLI	NFI	CFI	IFI
최종 모형	380.529 (p<.001)	6.138	.943	.047	.058	.870	.893	.911	.935	.937
수용 수준	계산된 χ^2 값과 임계치 를 비교	10미 만 우수	.90 이상 우수	.05 이하 우수	.10 이하 적합 .05 이하 매우 적합	.90 이상 우수	.90 이상 우수	.90 이상 우수	.90 이상 우수	.90 이상 우수

<표 11>과 같이 연구모형의 경우 $\chi^2=380.529$ 로 나타났으며, $Q=6.138$, $RMSEA=.058$, $NFI=.911$, $CFI=.935$, $GFI=.943$, $AGFI=.870$, $TLI=.893$ 으로 분석되어 구조방정식의 모형은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에서 적합도는 검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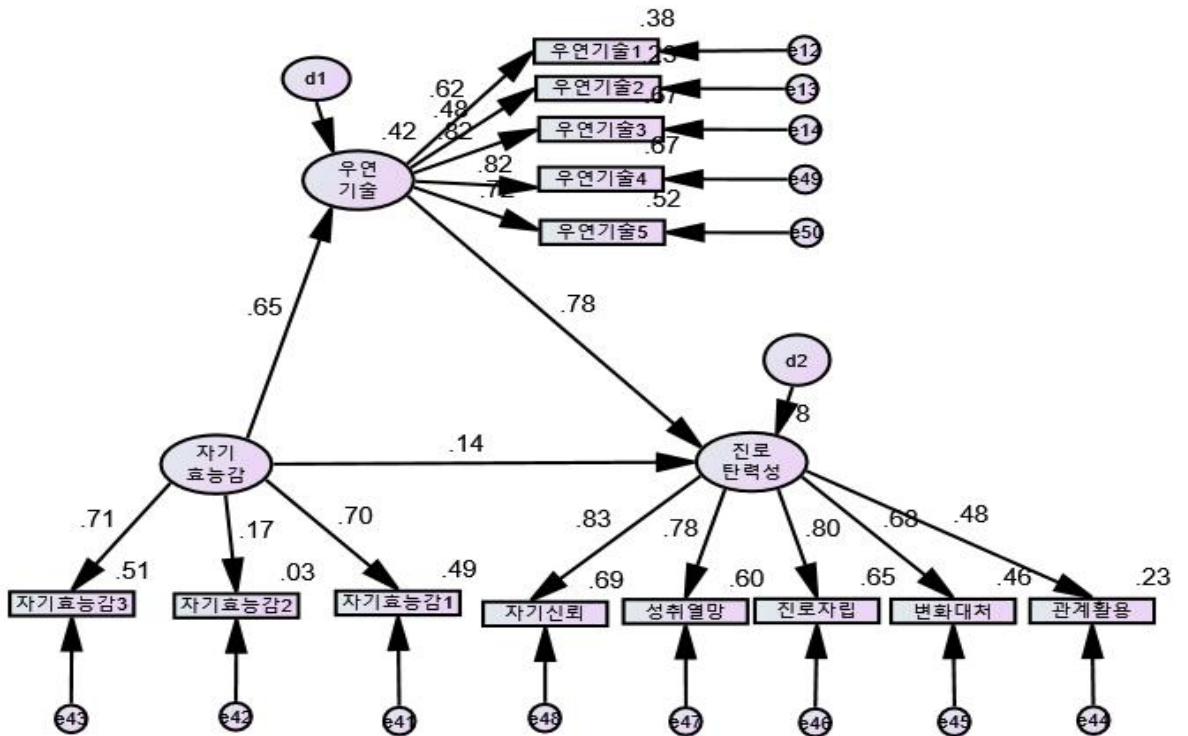
2. 구조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간의 관계에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은 표준화된 계수(β)를 통해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CR 값을 통하여 매개모형 모수에 대한 추정치를 분석하여 모형 검증을 할 수 있다. 표준화된 계수로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우연기술($\beta =.649$, $P<.001$), 우연기술이 진로탄력성($\beta =.780$, $P<.001$)으로 가는 경로계수 또한 정적으로 유의하였고, 자기효능감이 진로탄력성($\beta =.144$, $P<.05$)으로 가는 경로계수도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조모형과 경로계수는 <표 12>와 <그림 3>과 같다.

<표 12> 연구경로모형

경로	β	B	S.E	t	P
자기효능감 → 우연기술	.649	.539	.080	6.727***	.000
자기효능감 → 진로탄력성	.144	.108	.056	2.560*	.015
우연기술 → 진로탄력성	.780	.701	.108	6.482***	.000

*p<.05, ***p<.001



<그림 3> 최종연구모형

3. 매개효과 검증

일반적으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를 보통 매개변수라 하는데 이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즉,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결과임과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숨어있는 인과적인 구조를 이해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유의한 매개변수가 존재한다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주는 영향은 직접효과(direct effect), 그리고 간접효과(indirect effect)로 나누어진다. 직접효과는 매개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개변수를 거치지 않고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간접효과는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 간접효과를 매개효과라고 한다. 또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값은 총효과 또는 전체효과(total effect)라고 한다.¹⁾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우연기술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활용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절차에 맞춰 원자료(N=317)로 부터 5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최종모델의 총효과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추정한 다음 직접,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최종연구모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성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자기효능감	→	우연기술	.539	.000	.539
우연기술	→	진로탄력성	.701	.000	.701
자기효능감	→	진로탄력성	.108	.611**	.719
		우연기술			

1)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오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 간접효과만 유의미하게 나오면 완전매개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동시에 유의미하면 부분매개로 본다(김계수, 2010).

<표 1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자기 효능감이 진로탄력성으로 가는 경로에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우연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진로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연기술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 ANOVA 검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계획된 우연기술이 공변량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앞서 실시한 동질성 검증에서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었으나 집단간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단의 검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면 오차변인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통제하여 보다 정확히 효과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검사를 공변량으로 처리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황해익 외, 2008).

또한 집단검사의 평균차이를 통해 프로그램 실시 후, 효과의 지속성을 파악하였다.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척도인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의 종속변인 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4>에서 보듯이 호기심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F=152.621, p < .001$), 인내심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F=143.535, p < .001$), 유연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204.643, p < .001$).

마지막으로, 낙관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F=285.653, p < .001$), 위험감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342.598, p < .001$).

<표 14> 공변량분석 결과

하위 척도	변량원	제곱합	df	평균제곱	F/p
호기심	공변량	451.22	1	451.22	152.621***
	주효과	142.62	1	142.62	
	오차	241.25	14	25.63	
인내심	공변량	352.42	1	352.42	143.535***
	주효과	122.55	1	122.55	
	오차	152.62	14		
유연성	공변량	512.68	1	512.68	204.643***
	주효과	261.25	1	261.25	
	오차	332.46	14		
낙관성	공변량	251.59	1	251.59	285.653***
	주효과	151.42	1	151.42	
	오차	204.52	14		
위험감수	공변량	315.24	1	315.24	342.598***
	주효과	134.52	1	134.52	
	오차	232.46	14		

VI. 결론 및 논의

A.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인들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기술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기술 변인 모두가 상호간에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립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그 하위요인인 진로결정, 문제해결, 진로탐색은 진로탄력성과 그 하위요인인 자기신뢰, 성취열망, 진로자립, 변화대처, 관계활용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은 변화하는 효능감이 낮은 학생에 비해 진로세계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향후 진로목표 성취를 위해 꾸준히 학습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관련 과업수행에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진로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는 연구들(김세연, 2015; 김나래, 2013; 이순희, 손은령, 2013; 조성연, 홍지영, 2010; 최옥현, 김봉환, 2006)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계획된 우연기술은 진로탄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계획된 우연기술과 그 하위요인인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 모두는 진로탄력성과 그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우연사건을 놓치지 않고 노력함에 따라 의미 있는 진로경험의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대학생은 진로와 관련하여 예기치 않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개인의 우연기술 능력을 개발시켜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상황에서 성공적인 진로적응과정을 조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우연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

기술이 높을수록 진로탄력성이 높아짐을 확인한 선행연구들(권기남, 2016; 박현영, 2011; 조은혜, 2011)의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계획된 우연기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그 하위요인인 진로결정, 문제해결, 진로탐색은 계획된 우연기술과 그 하위요인인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세계의 특징을 인정하고, 이러한 특징을 최대한 사용하는 기술은 진로발달에 관한 자신감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계획된 우연기술은 부분 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인인 계획된 우연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종속변인인 진로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매개변인인 계획된 우연기술은 종속변인인 진로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계획된 우연기술이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을 통제했을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즉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계획된 우연기술의 하위요인인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 모두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의 결과는 계획된 우연기술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계획된 우연기술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계획된 우연기술은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발달시켜야 할 진로특성이며 불확실한 상황일지라도 필요에 따라 계획을 바꾸고, 긍정적인 자세로 상황을 바라보며, 학습의 기회를 새롭게 탐색하고, 난관 속에 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이자 행동양식이다. 상담자와 교사는 내담자의 적극적인 탐색을 통하여 우연적 사건을 많이 겪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이를 진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우연 기술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본 연구 결과를 근거하여 Michell, Levin, Krumboltz(1999)의 상담기법을 토대로 계획된 우연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상담기법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내담자의 탐색을 격려하고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실제 상담현장에 이러한 기법 및 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증적 검증 또한 필요하다.

둘째, 그동안의 진로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즉 진로성숙을 위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혀냈다.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서는 진로결정과 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로성숙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미래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인 진로탄력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그동안 진로상담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진로탄력성 역량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희소가치를 생각해볼 수 있다. 계획된 우연 기술과 관련하여 진로에 대한 연구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그 수는 많지 않다(김현옥, 2014; 박근영, 2014; 차영은 외, 2015; 최보영 외, 2011; 황현덕 외, 201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 기술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본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 있지 않으며, 일부 변인과의 관련성에 연구가 한정되어 있었다. 최근 진로 상담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기치 않던 사건 또는 기회 등의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연구 동향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연구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B.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의 제한점이다. 본 연구는 광주, 전남, 서울 소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표본 수가 317명으로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으로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탄력성, 계획된 우연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 방어, 불성실한 응답의 가능성이 있어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측정하는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조사뿐만 아니라 실험, 행동관찰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일시적으로 자료를 수집, 즉 횡단적 방법으로 측정한 것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생의 진로발달적인 측면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진로발달 과정과 다양한 환경요인들과의 상호작용 역시 개인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탄력성 사이에 다양한 매개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우연기술만을 연구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매개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세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환경적, 심리적 변인들을 포함시켜 대학생의 진로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상담 장면에서 대학생들이 계획된 우연 기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 기법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상담에 있어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연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된 우연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Michell, Levin, Krumboltz(1999)의 상담방법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상담 기법들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IV. 참고 문헌

- 강남옥, 김장희 (2016). 진로탄력성에 관한 연구동향 고찰. **인문학논총**, 41, 181-208
- 강문진 (2017).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부모-자녀 폐쇄형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현희 (2015). 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8(1), 59-78
- 곽윤지 (2017). **중학생의 진로포부와 진로탐색행동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 기술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형모 (2000). 자아탄력 집단의 성격특질. **한국심리학회지**, 20(3), 569-581
- 국민일보 (201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88940>
- 권기남 (2016). **지각된 진로장벽과 우연대처기술이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승 (2010). **대학생의 명리직업선천에 따른 진로 자기효능감과 위험감수수준의 관계분석**.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승 (2014). **대학생의 명리직업선천성과 진로탄력성,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관계**.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나래 (2013). **대학생의 내적통제성과 진로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관여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2014). **전문대학생 진로탄력성 척도 개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보경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람 (2012). **계획된 진로우연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 외 (2016). 계획된 우연 이론에 기반한 성격 5요인과 우연 기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491-508
- 김세연 (2015). **대학생의 성인애착,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완재, 정화영 (2007). 창업자 특성과 소기업 사업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2(3), 33-60

- 김희주 (2014). 다차원적 완벽주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영 (2011). 진로결정에 있어서 우연적사건의 역할 : 진로적응성을 매개효과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희, 광원준, 심지현 (2015). 경력단절여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5(4), 57-88
- 손은령 (2009). 진로선택과정에서 우연 혹은 기회의 역할 고찰. **상담학연구**, 10(1), 385-397
- 손은령 (2012). 직업 성취과정에 미치는 우연 혹은 기회의 영향 : 40대 여성 진로상담 전문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437-453
- 손화철 (2016).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 11 : 34-41
- 송병국, 이채식 (1997). 규범적 진로발달 이론에 대한 비판 : 진로의사결정에서의 우연의 영향. **농촌지도학회지**, 4(1), 329-337
- 송병국 (1998). 성인노동자의 직업선택과정에서 우연적 요인이 미친 영향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0(4), 65-88
- 송현심, 홍혜영 (2010).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3), 1325-1350
- 신순옥, 박서연, 이상희 (2015). 진로 결정 과정에서 우연 경험 연구 : 전환 국면이 있는 코칭 및 상담 분야 종사자를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4(1), 1-27
- 신윤정 (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209-226
- 안윤정, 임윤서 (2017).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학생 인식과 진로교육의 방향모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8), 329-351
- 안윤정, 오현주 (2012). 직업상담사의 직업선택과정에서 '계획된 우연'의 역할. **진로교육연구**, 25(4), 117-140
- 염태영 (2016). 전문대학생의 진로탄력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현주 (2013). 작업자의 계획된 우연과 기회전략이 직업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순화 (2016). 대학생의 계획된 우연기술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교육혁신연구**, 26(3), 149-168

- 이상희, 신상수 (2012). 진로선택에서의 우연요인에 대한 대학생의 개념도 분석. **인간 이해**, 33(1), 1-20
- 이순희, 손은령 (2013).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4), 2525-2544
- 이은경 (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종찬 (2013).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혜 (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탄력성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2), 39-59
- 장선희 (2013).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관여에서의 계획된 우연 기술의 역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남근, 정미예 (2013). 대학생의 우연 대처기술이 진로정체감, 부정적 취업태도 및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2), 337-357.
- 조성민, 민경식 (2011). 성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차이 및 관계. **진로교육연구**, 24(3), 59-75
- 조성연, 홍지영 (2010). 성인 학습자의 인구학적 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관계연구. **상담학연구**, 11(3), 1099-1111
- 조은혜 (2011). 취업준비활동과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리리 (2012). 진로결정상태에 따른 진로유연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 제한 중국유학생과 한국대학생의 차이.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보영 외 (2011). 우연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진로스트레스,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5), 1873-1891
- 최옥현, 김봉환 (2006). 대학생의 진로낙관성과 진로적응성 : Career Futures Inventory (CFI)의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7(3), 821-833
- 최유진 (2015). 경력단절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 (2009). 정서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현덕 (2012). 계획된 우연성이 고등학생의 진로탐색에 미치는 조절 효과 검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현덕 외 (2012). 고등학생의 계획된 우연 기술 수준에 따른 진로포부와 직업탐색행동의 관계탐색. *청소년상담연구*, 20(2), 193-210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he Exercise to control*, NY: W. H. Freeman and Company.
- Baumgardner, S. R. (1977). Vocational planning: the great swindle.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6, 17-22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1996). Evaluation of a short-form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1), 47-57
- Bimrose, J., & Hearne, L. (2012). Resilience and career adaptability: Qualitative studies of adult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1, 338-344
- Block & Kremen. (1996). *Job shift: How to prosper in a workplace without jobs*. London: Brealey.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Bright, J. E. H., & Pryor, R. G., & Harpham, L. (2005). The role of chance event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3), 561-576
- Creed, P. A., Patton, W., & Prideaux. L. (2007). Predicting change over time in career planning and career explor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30(3), 377-392
- De Bruin, G. P., & Lew, C.C. (2000). Construct validity of the career resilience questionnaire. *Journal of Industrial Psychology*, 28, 67-69
- Fourie, C., & Vuuren L. J. (1998). Defining and measuring career resilience. *Journal of Industrial Psychology*, 24, 52-59
- Goodman, J. (1994). Career adaptability in adults: A construct whose time has com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3, 74-84
- Hackett. G., & Betz, N. E. (1981). Som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1), 1-12
- Hirschi, A., & Vondracek, F. W. (2009). Adaptation of career goals to self and

- opportunitie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1), 120-128
- Kim, B., Jang, S. H., Jung, S. H., Lee, B., Rhee, E., Cho, S. H., & Lee, S. M. (2014).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Planned Happenstance Career Invent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2, 239-253
- Kohn, P. M, O'Brien Wood, C, Pickering, D. I., & Decicco, T. L. (2003). The Personal Functioning Inventory: A reliable and valid measurement of adaptiveness in coping.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5, 111-123.
- Krumboltz, J. D. (2009).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135-154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s,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1), 79-122.
- London, M. (1983).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 620-630
- London, M. (1987). Career motivation of full-and part-time workers in mid and late care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areer Management*, 5, 21-29.
- London, M. (1997). London's career motivation theory. *An update on measurement and research*, 5, 61-80
- Mitchell, K. E., Levin, A. S., & Krumboltz, 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2), 115-123
- Rickwood, R. R., & Roberts, J. (2002). Empowering high - risk clients: Exploring a career resiliency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nsultation on Career Development Conference, Ottawa, ON.
- Rottinghaus, P. J., Day, S. X., & Borgen, F. H. (2005). The career futures inventory: A measure of career-related adaptability and optimism.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1), 3-24
- Schunk, D. H. (1984). Self-efficacy pre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33, 299-315
- Scott, J., & Hatallo, J. (1990). The influence of chance and contingency factors on

- career patterns of college-educated wome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18-30
- Super , D. E., & Knasel, E. G. (1979). *The Development of a Model, specifications, and sample Items for Measuring Career Adaptability (Vocational Maturity) in Young Blue-collar Workers*. Hertford National Institute for Careers Education and Counselling.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V. 부록

<부록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 다음은 진로 결정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경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 지않 다	그렇 지않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선택 가능한 직업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2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1	2	3	4	5
3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	1	2	3	4	5
4	처음 선택한 전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전공을 바꿀 수도 있다.	1	2	3	4	5
5	마음에 두고 있는 직업 목록들 중에서 한 가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6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는데 어떤 교과과정(교육과정)이 요구되는지 알 수 있다.	1	2	3	4	5
7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	2	3	4	5
8	나는 직업 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2	3	4	5
9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한 전공이나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2	3	4	5

10	향후 10년간의 직업 고용 경향을 보여주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1	2	3	4	5
11	나는 관심 있는 전공이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1	2	3	4	5
12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평균 수입과 연봉을 알아 볼 수 있다.	1	2	3	4	5
13	나는 선택한 진로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바꿀 수 있다.	1	2	3	4	5

<부록 2> 진로탄력성 척도

◎ 다음은 진로에 대한 생각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가장 자신을 잘 설명하는 번호에 체크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1	2	3	4	5
2	나의 진로에서 어떤 일도 결국엔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1	2	3	4	5
3	나는 나의 진로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1	2	3	4	5
4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대한 믿음을 가진다.	1	2	3	4	5
5	내가 원하는 진로에서 성공할 자신이 있다.	1	2	3	4	5
6	진로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나 자신을 믿는다.	1	2	3	4	5
7	내가 추구하는 삶의 비전(목적)이 있다.	1	2	3	4	5
8	나는 이루고 싶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다.	1	2	3	4	5
10	내가 생각하는 분명한 성공의 기준이 있다.	1	2	3	4	5
11	나는 꿈과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생각하면 의욕이 생긴다.	1	2	3	4	5
12	나는 목표의식이 분명한 편이다.	1	2	3	4	5
13	진로와 관련해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한다.	1	2	3	4	5
14	나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15	내 진로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계속 배우려 한다.	1	2	3	4	5
16	나는 진로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한다.	1	2	3	4	5
17	진로와 관련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한다.	1	2	3	4	5
18	나는 진로를 위해 준비하며 노력한다.	1	2	3	4	5
19	나는 역동적인 변화를 오히려 즐기는 편이다.	1	2	3	4	5
20	나는 실패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이 작다.	1	2	3	4	5
21	낯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다.	1	2	3	4	5
22	갑작스런 변화에도 짜증내지 않고 차분히 대처한다.	1	2	3	4	5
23	사회변화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대처한다.	1	2	3	4	5
24	나의 진로에 갑작스런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한다.	1	2	3	4	5
25	나를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1	2	3	4	5
26	진로에서 좌절했을 때 친구나 가족의 위로가 도움이 된다.	1	2	3	4	5

27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진로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1	2	3	4	5
28	나의 스트레스를 털어놓을 수 있어서 큰 힘이 되어 주는 사람들이 있다.	1	2	3	4	5
29	내 주위에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1	2	3	4	5
30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부록 3> 계획된 우연기술 척도

◎ 다음은 진로와 관련된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주변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에 호기심을 갖는다.	1	2	3	4	5
2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할 뜻밖의 기회가 생기는 것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1	2	3	4	5
3	나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에 따라 진로의 방향을 트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2	3	4	5
4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겠다.	1	2	3	4	5
5	나는 미래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1	2	3	4	5
6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진로를	1	2	3	4	5

	추구하겠다.					
7	나는 계획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 편이다.	1	2	3	4	5
8	내 진로의 방향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나는 하나의 진로만 추구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유연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10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나는 참을성을 가지고 노력한다.	1	2	3	4	5
11	나의 행동의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해볼 것이다.	1	2	3	4	5
12	나는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있다.	1	2	3	4	5
13	나의 미래의 진로는 밝다.	1	2	3	4	5
14	진로탐색에서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나는 꾸준히 내가 하는 일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15	나는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유연한 태도를 지닌 편이다.	1	2	3	4	5
16	진로탐색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을성 있게 나의 길을 가겠다.	1	2	3	4	5
17	나의 앞날은 가능성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내 진로에 있어 앞으로 많은 기회가 나에게 올 것이다.	1	2	3	4	5
19	나는 보다 만족스러운 진로선택을 위해 잘 모르는 것에 도전하는 위험도 무릅쓸 수 있다.	1	2	3	4	5
20	나는 나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활동들에 관심이 많다.	1	2	3	4	5
21	우연히 얻은 직업 정보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1	2	3	4	5

22	나는 뜻밖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세운 진로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한다.	1	2	3	4	5
23	내가 처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내 진로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1	2	3	4	5
24	진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5	그 직업에서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한번 도전해볼 것이다.	1	2	3	4	5